완도 청해초, 웃음 가득한 '디지털 독서골든벨' 행사 개최

학부모회 주관, 초등·유치원생 학부모 대상 행사 진행
'팅커벨'이라는 프로그램 활용, 개인 스마트폰으로 참여

완도 청해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10일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골든벨 행사를 진행하였다. 평소 자녀들의 독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청해초 학부모회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1월과 12월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골든벨 행사를 계획한 것이다. 특히 '팅커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부모들의 개인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방식의 골든벨 행사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독서골든벨 행사를 위해 학부모들이 읽은 책은 2011년에 출판된 한윤섭 동화 작가의 '서찰을 전하는 아이'로 동학 농민운동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어린 아이가 녹두장군 전봉준에게 서찰을 전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책이다.

이 책을 추천한 청해초 임금숙 교감은 "우연한 계기로 이 책을 접했는데 마음이 울림이 있었다. 우리 역사를 생각해볼 수 있기도 하고, 이야기 전개도 재미있어서 추천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청해초 교직원 모두가 올해 함께 읽은 책이기도 하다.

학부모 독서골든벨 행사는 오후 5시에 학생, 교직원의 관심을 받으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골든벨 활동은 문제를 풀어 답을 맞히지 못하면 탈락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날 행사는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푸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부모들은 문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각자 답을 입력한 뒤, 참가자들이 제출한 답을 화면으로 모두가 확인하고 정답을 맞힌 사람은 점수를 획득해 나갔다. 행사장에는 학부모들의 정답을 맞힌 기쁨의 환호와 정답을 맞히지 못해 아쉬운 탄식이 이어졌다. 그리고 조금 엉뚱하게 제출한 답을 보고 웃음이 터지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학년 박00학생의 학부모는 "처음에는 골든벨 행사 참여에 조금 망설였다. 우리 아이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되어 용기를 냈고, 잘 참여했다는 생각이 든다. 12월에도 참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해초 학부모회장은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책을 보는 모습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책을 읽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부모들도 책을 읽으니 좋았다고 말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즐겨 읽는 문화가 생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해초 학부모회는 12월 12일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2회 독서골든벨 행사와 김남중 동화작가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 진상초, 가을 시화전·시낭송회 개최

광양의 진상초등학교는 최근 감성을 꽃 피우는 가을 시화전 및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노오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교정을 배경으로 하여 학생들의 가을 감성이 충분히 채워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시화전은 진상초의 특색교육인 예술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동시쓰기 활동의 결과물을 교정 곳곳에서 개최한 가을 시화전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국어 교과의 독서단원 시간을 활용하여 작가와의 동시쓰기 수업을 실시 해 왔으며, 5월에는 봄 시화전 및 시낭송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시화전의 주제는 〈우리들을 예쁘게 물들이는 가을〉을 주제로 유치원생부터 6학년들까지,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였고 낭랑한 목소리로 직접 시 낭송도 하였다.

광양=김현근 기자

곡성 입면초, 따뜻한 마음 나누는 의미있는 '가래떡데이' 행사

'가래떡데이' 및 '농업인의 날' 기념 개최

곡성 입면초등학교 중앙 현관에 근사한 가게가 차려졌다.

이곳은 11일 '가래떡데이' 및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

가래떡을 15cm 정도의 크기로 잘라 개인별로 먹을 수 있도록 예쁘게 종이 팩에 포장하여 나누어 주었고, 유치원에서부터 전교생, 전교직원이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 간식을 먹었다.

11월 11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빼빼로데이'로 알려져 있지만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며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농림부에서 지정한 날이다.

입면초등학교에서는 '빼빼로 데이'로 불리는 이날에 초코과자 대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선물하며 학생들에게 농업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아침부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의미있는 '가래떡 데이'를 실시하였다.

2학년 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맛있는 가래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의미를 알고 가래떡을 먹으니 더 맛있었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무안중, '건강 UP 비만 DOWN' 프로그램 운영

무안중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Happy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문에는 '건강 UP 비만 DOWN 우리 함께 걷기 해볼래'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교하여 아침 햇살을 받으며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세 바퀴 이상 걷고 있다. 에듀버스 통학생이나 아침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돌면서 건강한 심신을 만들고 있다.

교직원들도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휴게 시간 등에 운동장을 돌면서 체력을 다지고 있다.

무안중스포츠클럽 학생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의 걷는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 열심히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줄 예정이다.

한편 무안교육지원청에서는 무안중 교육공동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 프로그램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성 진원초, '진원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11개 부스 중 10개 부스 학생들이 직접 운영 '큰 호응'

장성 진원초등학교는 지난 10일 '2022 진원 소프트웨어 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진원초등학교는 평소 정규시간 및 방과후학교 시간에 코딩 및 메이커 교실, 로봇과학부, 소프트웨어부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11개 부스 중 10개 부스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회 중심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부스를 선택하고 부스별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총 5개 분야 11개 부스로 다양한 체험 중 흥미 있는 체험 위주로 참여하였다.

장성=기동취재본부